

봄비가 내리고 곳곳에 생명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하는 역사가 우리네 삶에도 일어나길 소망해 봅니다.

내(예수님)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7)



작년 9월에 대만에서 온 형문이가 저희 팀에서 준비한 “신학기 환영 파티”에 왔습니다. 그 뒤로 계속 저희 팀 모임에 나오는 형문이를 만나 복음을 전하여, 형문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올해 1월 형문이가 대만으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형문이가 돌아가기 전까지 성경과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형문이의 삶을 듣고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형문이는 대만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에게 연결이 되어 계속해서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두 자매와 양육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선은 중국에서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멋진 신앙을 가진 시선은 찬양하는 것을 특히 좋아합니다.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시작한 숨니마는 하나님 말씀(성경)을 흠뻑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팀 안에서 유학생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신경을 써 주니, 몇 지체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지체들 중 한명인 코코(중국)의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성경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선교사님이 코코를 양육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양육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끌어 안고 살아가는 코코,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는 코코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 말씀으로 그래고 제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코코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올해 3월부터 유학생 지체들과 성경 묵상(QT)를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어 큐티집, 영어 큐티집을 사서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고, 큐티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큐티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방에 서로 올리고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 유학생 지체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길 기대합니다.

이들은 모두 저의 양이 아닙니다. 저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저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성실히 잘 돌보는 예수님의 사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일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역자되게 하소서.

-나이가 많으신 양가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장인,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믿게 하소서.

-하준(고1), 하연(중2)이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며, 즐겁게 학교 생활하게 하소서.

-코코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소서.

-한디가 박사 과정 가운데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한디가 주님에게서 쉼을 얻고 새힘을 얻게 하소서.

-대학교를 졸업한 지은(홍콩. 형제)이가 한국에서 취업을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진로를 열어주소서.

-형문이가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네팔 국가 장학생으로 연세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숨니마가 네팔을 변화시킬 크리스천 지도자로 자라나게 하소서.

-음악의 재능을 가진 시선이가 대학교 안에서 기타를 치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를 좋은 장소를 찾게 하소서.

-유학생들이 매일 큐티를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유학생들을 만나게 하소서.

연세대 국제 캠퍼스(송도) 모임 식사비를 후원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국민은행 613201 04 212563 (송해곤)